

조경 및 환경녹화용 자생수종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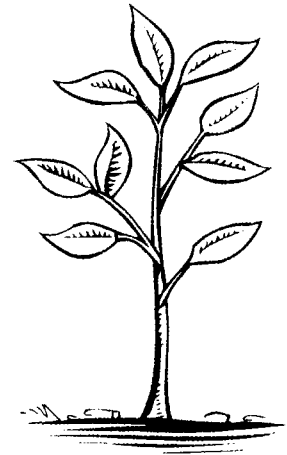
전국에 식재가능한 유망 조경수

오구균 호남대 도시·조경학부 교수

박석곤 호남대 대학원

● 글 쓰는 순서

1. 부록을 시행수종 (1)
2. 난대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 (2)
3. 온대 반난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 (3)
4. 온대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 (4)
5. 전국에 식재가능한 유망 조경수 (V)
6. 온대 환경녹화용 수종 (6)
7. 난반온대에 적합한 조경수 (7)



우리 나라의 수목분포는 거시적으로 기후조건에 따라 크게 제한을 받는다. 일부 수종들은 난대,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한대기후대의 특징기후대에서만 분포하는 반면, 많은 수종들은 대부분 전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수종은 기후조건상 생육의 제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식재할 수 있어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식재가능한 수종으로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황벽나무, 비목나무, 붉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다릅나무, 회나무, 고광나무, 붉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오미자, 으아리 등 다양한 수종이 있다.

1. 전국에 식재가능한 유망 조경수 생산현황

전국에 식재가능한 수종 중 생산되는 조경수는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 자귀나무, 쉬나

무, 참빗살나무, 때죽나무, 황벽나무, 말채나무, 물푸레나무, 수수꽃다리, 생강나무, 병꽃나무, 화살나무 등이 있다. 이 중 대규모로 생산이 되는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산벚나무, 자귀나무, 쉬나무, 때죽나무, 말채나무, 물푸레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말발도리 등이 있다. 소규모로 생산되는 수종은 비목나무, 참빗살나무, 황벽나무, 신나무, 수수꽃다리, 옥매, 생강나무, 인동덩굴 등이 있다.

2. 식재기법에 따른 전국에 식재가능한 조경수종

전국에 식재가능한 수종을 조경 식재기법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기조식재는 식재공간의 전체적인 경관의 틀을 짜는 바탕식재와 같은 개념이다. 기조식재 수종으로는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

나무, 황벽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층층나무 등이다. 그 중에 버드나무, 고로쇠나무는 주로 하천이나 수분이 많은 장소에 이용이 알맞으며 가로수식재, 기조식재, 녹음식재, 완충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의 경관과 식재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주연부식재 수종으로는 회나무, 노린재나무, 참개암나무, 고광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고추나무, 갈매나무, 박쥐나무, 정금나무, 병꽃나무 등이 있다. 그 중에 고추나무는 비옥하고 습기가 적당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4~5월에 만발하는 흰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으며 가을에 익는 열매 모양도 특이하다.

기조식재의 단조로움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악센트식재 수종으로 비목나무, 산뿔나무, 산사나무, 산들배나무, 팔배나무, 자귀나무, 쉬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신나무, 붉나무, 참빗살나무, 당단

풍, 정향나무, 수수꽃다리 등이 교목성 수종이다. 관목성 수종으로는 생강나무, 조팝나무, 옥매, 화살나무, 진달래, 작살나무, 분꽃나무, 괴불나무 등이다.

가로수식재, 녹음식재 등의 기능식재 수종으로 시무나무, 주엽나무, 다릅나무, 말채나무, 쇠풀푸레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있다. 경계식재, 생울타리식재, 그늘시령식재 수종으로 찔레꽃, 오미자, 으아리, 노박덩굴, 머루, 다래, 조릿대, 인동덩굴 등이 있다.

(식재기법 해설:「조경수」2000 9/10 p18 참조).

3. 전국적으로 식재가능한 유망한 조경수종

현재 생산이 안 되거나, 소규모로 생산되는 수종 중 조경용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수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수평으로 배열된 가지패턴과 수피에 코르크가 발달해 있다.



▲ 갈참나무(*Quercus aliena*): 우리 나라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으로서 산록부 이하의 적운지에 기조식재, 군락식재, 녹음식재, 완충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8~9월에 붉게 익은 열매가 아름다워 정원 및 공원의 울타리나 그늘시령에 식재할 수 있다.



▲ 당단풍(*Acer pseudosieboldianum*): 단풍이 아름다워 기조식재, 군락식재, 악센트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아직 조경수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른 봄에 홍색계통의 꽃이 아름다워 군식하면 좋다



▲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4~5월에 흰색꽃이 줄기를 따라 만발하여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다.



▲ 산돌배(*Pyrus ussuriensis*): 4~5월에 피는 흰색꽃과 8~10월에 익은 노란색 열매가 관상 가치가 있다.



▲ 회나무(*Euonymus planipes*): 9-10월의 연한 핑크색 단풍과 10월에 익는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 졸참나무(*Quercus serrata*): 가을의 주황색 단풍과 원정형의 수형이 아름다워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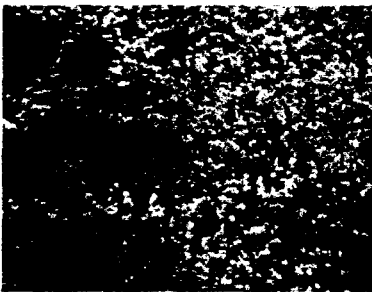
▲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노란색 단풍과 주홍색 열매가 매우 아름답다.



▲ 붉나무(*Rhus javanica*):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가 노랗게 변하며, 열매에 날개가 있다.



▲ 디릅나무(*Maackia amurensis*): 봄철의 은색 싹과 여름철 백색꽃이 가지 끝에 달려 관상 가치가 높고, 구릿빛 수피가 특징이다.



▲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지만, 이른봄에 노란 꽃과 노란색 단풍, 질감이 아름답다.



▲ 잠빛살나무(*Euonymus sieboldianus*): 원형을 이루는 수형이 수려하며 가을의 보라색 단풍과 열매가 아름답다.



▲ 쪽동백나무(*Styrax obassia*): 5~6월에 피는 흰색의 꽃과 9월에 익는 열매의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표 1. 전국에 식재가능한 유망 조경수

| 성상별 | 식재기법 | 경관식재 | | | 기능식재 |
|-----------|------------|---|---|--|--|
| | | 기조식재 | 주연부식재 | 악센트식재 | |
| 낙엽 활엽수 | 키 큰 교목 |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황벽나무, 고로쇠나무*, 옻나무, 층층나무* | | 비옥나무, 산뿔나무*, 산사나무, 산돌배나무, 필배나무, 자귀나무*, 쉬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신나무 | 시무나무, 주엽나무, 다릅나무, 말채나무*, 쇠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 |
| | 키 작은 교목 | | 회나무, 노린재나무 | 붉나무, 참빗살나무, 당단풍, 정향나무, 수수꽃다리 | |
| | 관목 | | 참개암나무, 고광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고추나무, 갈매나무, 박쥐나무, 정금나무, 병꽃나무 | 생강나무, 조팝나무*, 옥매, 화살나무*, 진달래, 분꽃나무, 괴불나무, 말발도리* | 찔레꽃 |
| | 민경목 | | | | 오미자, 으아리, 노박덩굴, 머루, 다래 |
| 상록 활엽수 | 관목 | | | | 조릿대 |
| | 민경목 | | | | 인동덩굴 |

*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종

1). 낙엽활엽교목

(1) 갈참나무(*Quercus aliena*)

- 생태적 특성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라며 토심이 깊고, 적윤지의 토양에 적합하다.
- 용도 및 유망성
우리 나라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으로서 산록부 이하의 적윤지에 기조식재, 군락식재, 녹음식재, 완충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2) 졸참나무(*Quercus serrata*)

- 생태적 특성
산림의 꼭간부에서 생장력이 우수하며 참나무류 중 에 키가 가장 크다.

• 용도 및 유망성

가을의 주황색 단풍과 원정형의 수형이 아름다워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으로 기조식재, 녹음식재, 군락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3)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 생태적 특성
햇볕이 잘 드는 비옥토에 잘 자라고 내건성이나 공해, 이식에 대한 내성은 무난한 편이다.
- 용도 및 유망성
수평으로 배열된 가지패턴과 코르크가 발달하여 기조식재, 녹음식재, 가로수식재로 이용 가능하다.

(4) 비옥나무(*Lindera erythrocarpa*)

- 생태적 특성
전석지의 그늘진 곳에서 생육이 좋으며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노란색 단풍과 주홍색 열매가 매우 아름답다. 주로 정원이나 공원의 기초식재, 악센트식재, 유도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5) 산들배(*Pyrus ussuriensis*)

• 생태적 특성

전국의 마을 부근과 산지에서 자란다. 햇별이 잘 드는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4~5월에 피는 흰색꽃과 8~10월에 익은 노란색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어, 악센트식재, 경계식재로 이용된다.

(6) 당단풍(*Acer pseudosieboldianum*)

• 생태적 특성

산록 수림하의 반음지에서 잘 자라고 적습의 사질양토에서 생육이 잘 된다. 내공해성이 강하고 이식이 용이하다.

• 용도 및 유망성

현재 조경용 대량생산되는 당단풍은 중국단풍으로 자생종인 당단풍은 아직까지 조경식재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단풍이 아름다워 기초식재, 군락식재, 악센트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7) 붉나무(*Rhus javanica*)

• 생태적 특성

양수로서 그늘진 곳과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나 이식이 쉽지 않고 내공해성은 보통이다.

• 용도 및 유망성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가 노랗게 변하는 나무로 교목 아래 식재해도 잘 자랄 수 있으며, 악센트식재, 경계식재, 소나무군락 식재시 하층 보조수종으로도 이용이 용이하다.

(8) 쪽동백나무(*Styrax obassia*)

• 생태적 특성

우리 나라 각지의 산기슭과 산중턱의 반음지에서 잘 자라고 적습하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 용도 및 유망성

아직까지는 조경용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5~6월에 피는 흰색의 꽃과 9월에 익는 열매의 관상 가치가 매우 높아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악센트식재, 유도식재에 적합하다.

(9) 참빗살나무(*Euonymus sieboldianus*)

• 생태적 특성

중용수이며 적윤지가 좋으나 건조에 잘 견디고 대기 오염에 강하며 이식이 잘 된다.

• 용도 및 유망성

원형을 이루는 수형이 수려하며 가을의 보라색 단풍과 열매가 아름답다. 악센트식재, 주연부식재로 좋으며 단식 또는 군식한다.

(10)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 생태적 특성

우리 나라 각처 산지의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라며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봄철 은색의 싹과 여름철 백색꽃이 가지 끝에 달려 관상가치가 높고, 구릿빛 수피가 특징적이라 가로수식재, 악센트식재, 녹음식재로 좋다.

(11) 회나무(*Euonymus planipes*)

• 생태적 특성

그늘진 곳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배수가 잘 되고 토심이 깊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현재까지 조경용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9~10월의 연한 핑크색 단풍과 10월에 익는 열매가 아름다워 악센트식재, 주연부식재로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2) 낙엽활엽관목

(1)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ckii*)

• 생태적 특성

그늘진 곳에서 생육이 잘 되고 석회질 토양이나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4~5월에 흰색꽃이 줄기를 따라 만발하여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조경용으로 쓰이지 않으나 내건성 및 내한성이 강해 약센트식재, 주연부식재, 차폐식재에 적합한 수종이다.

(2)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 생태적 특성

내한성이 강하며, 가뭄에도 잘 견딘다. 음지에서 잘 자라며 비교적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지만, 이른 봄에 노란 꽃과 노란색 단풍, 질감이 아름다워 주연부식재, 약센트식재, 유도식재로 이용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

(3)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 생태적 특성

양수로서 내음성이 크며 산성토양에 잘 자란다. 배양해성은 중간이고 이식은 보통이다.

• 용도 및 유망성

이른 봄에 일찍이 만개하여 꽃이 아름다워 도심지나 공원, 정자, 아파트 주변에 식재된 식재, 주연부식재, 차폐식재에 적합하다.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

3) 낙엽활엽만경목

(1)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 생태적 특성

산지의 경사면에 자라며 내음성, 내한성이 강하다.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 용도 및 유망성

8~9월에 붉게 익은 열매가 아름다워 정원 및 공원의 울타리나 그늘시렁에 식재하여 효과를 낼 수 있다. **조경수**

